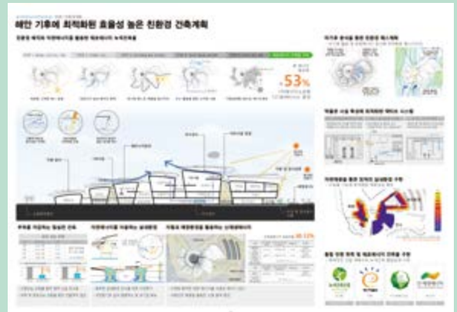
3등작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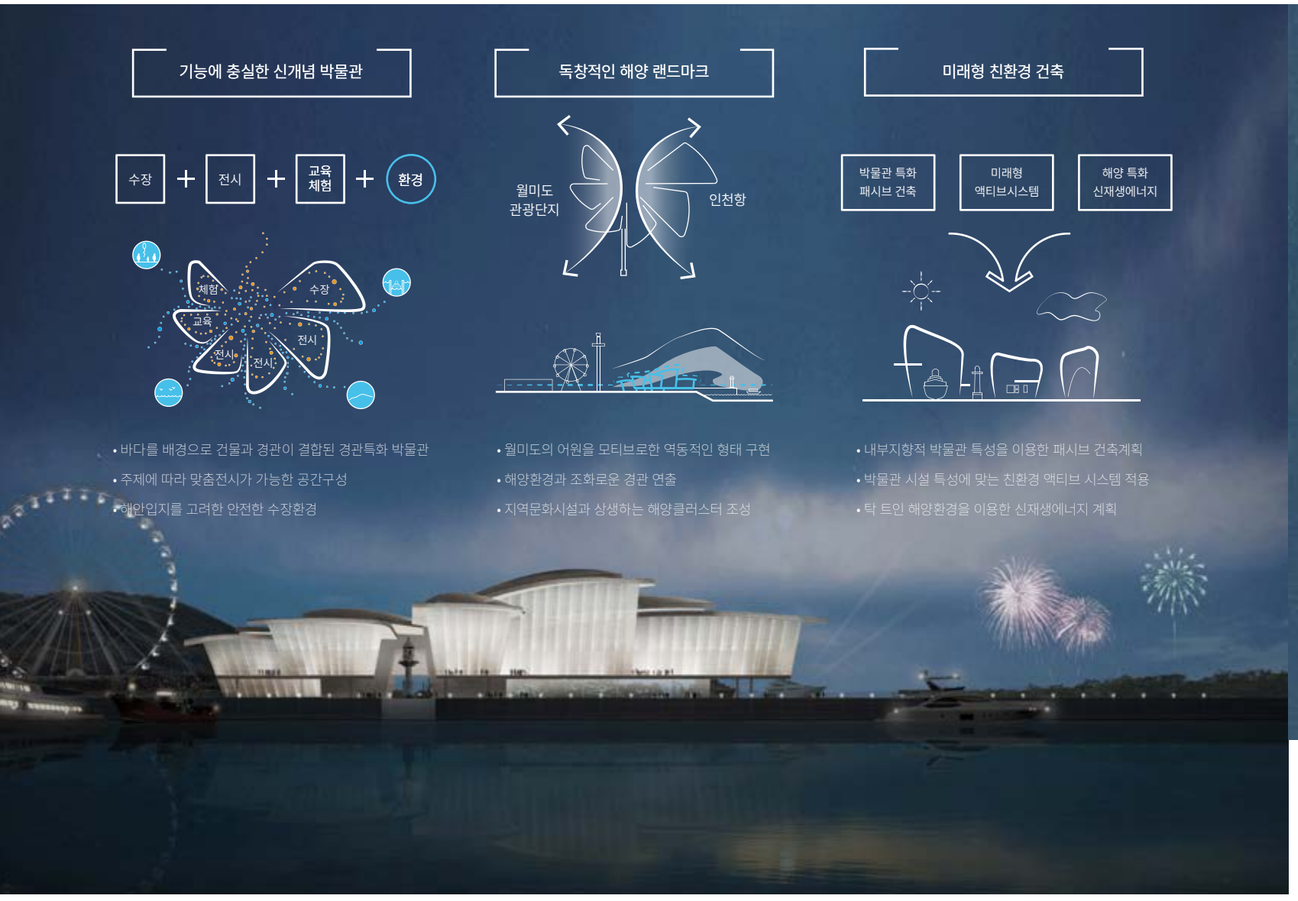
SIZE : A3(420 x 297mm), 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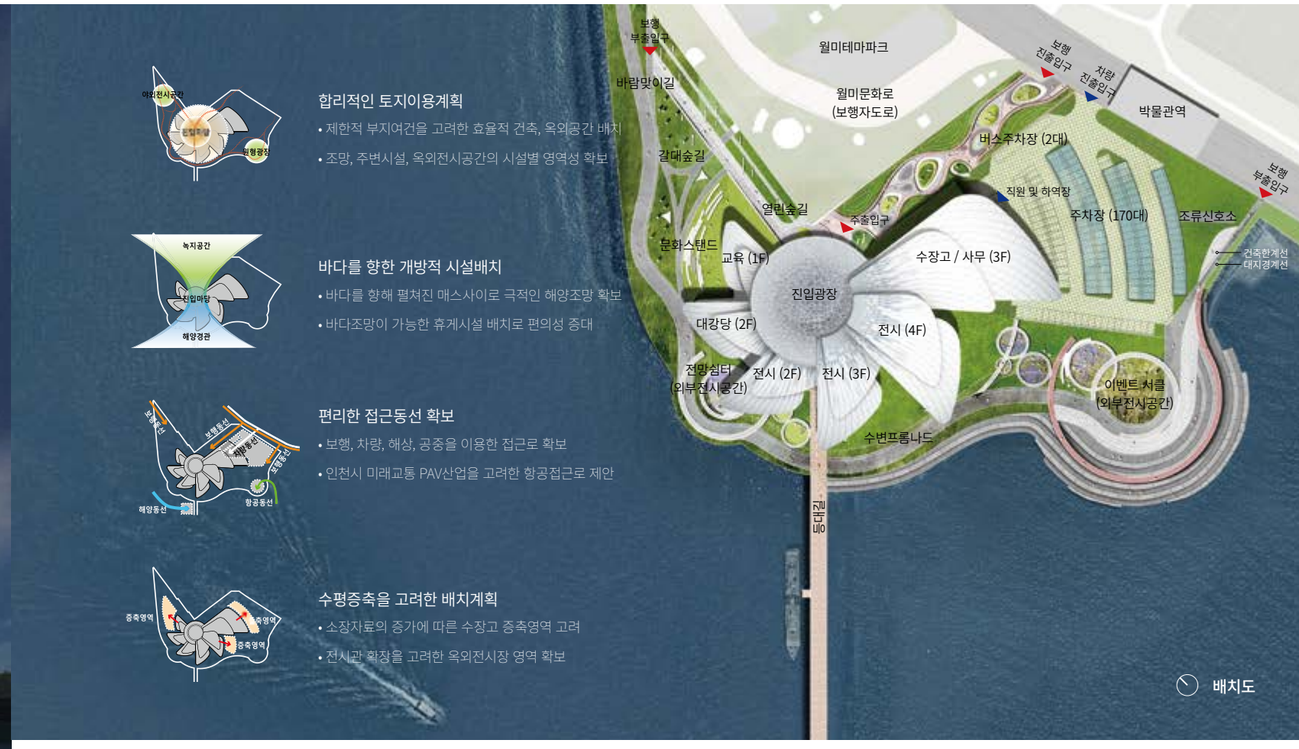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제안공모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윤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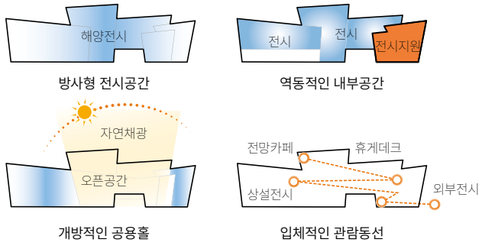
(주)해안건축은 1990년 설립되어 꾸준한 건축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왔으며, 해외 건축계에 진출, 탁월한 성과를 내며 세계적 건축가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다. 디자인을 통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1,000여 명의 임직원이 건축, PCM, 도시, 조경, EV, 인테리어, 녹색건축 등 다양한 전문분야 속에서 상호 협업체제를 갖추고, 주거복합, 복합상업시설, 업무시설, 연구시설, 문화시설, 마스터플랜 등의 모든 분야의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창의력과 행동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설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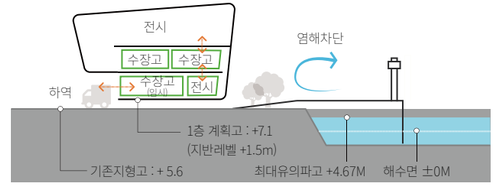




다채로운 공간감의 실내 단면 구성



해안 입지를 고려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장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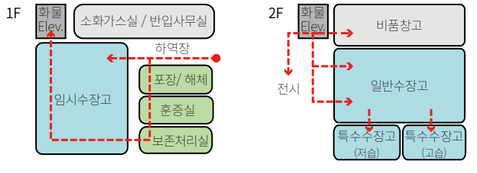


- 해일대비 수장고 상층 (+8.7m, 2층) 계획
- 수장고 외기에 면하는 부분을 최소화
- 피난층에 임시수장고, 해체실 배치
- 유물보호 및 항온항습비용 절감

외부 유해요소를 차단하는 유물보존환경 시스템 구축

- 이중벽체 구성
- 유물보존에 최적화된 단면시스템 적용
- 지진감지센서 + 면진바닥구조
- 지진에 대비한 충격제어 시스템

원스톱 수장하역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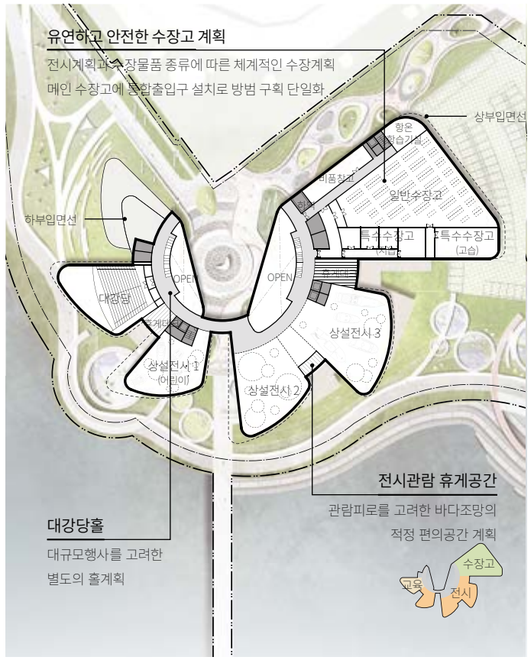


- 하역장에서 보존 처리까지 단일동선 구성
-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수장고 통합조닝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서해에서 내항으로 접근하는 길목에 위치하는 관문으로, 인천으로 접근하는 모든 배들이 첫 번째로 만나는 상징적인 곳에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과 풍부한 관광자원, 파노라마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계획안은 전시, 교육, 휴게 등의 기능을 모두 바다를 향해 열려 있는 형태로 계획했으며, 각각 독립된 기능들은 진입 광장과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통합 연계했다.

진입광장은 '등대길'이라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누구나 해양박물관의 내외부를 즐길 수 있으며, 바다와 만나는 공간은 이벤트 서클, 문화 스탠드 등 다양한 스토리의 전시공간으로 기획되어 특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각각의 전시공간들은 다양한 층고와 함께 가변형 공간으로 구성하여 주제에 따라 맞춤 전시가 가능하며, 해안 입지를 고려한 기계실 및 수장영역을 지상층에 계획하여 합리적인 운영관리도 가능하다. 특히, 월미도의 어원이 되는 '물이 휘감아 도는 섬'을 모티브로 하는 소용돌이 형태의 매스 계획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담아냈으며, 바다의 상징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풍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수도권 최초의 국립해양박물관으로서 인천항, 서해 갑문, 월미테마파크, 모노레일, 등대 등 다양한 주변 해양 자원들과 연계하여 도시 전체를 하나의 해양 문화 클러스터로 이끌어 갈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대지면적 27,335m² **연면적** 16,938m² **건축면적** 8,231m² **층수** 지상 4층 **건폐율** 30.11% **용적률** 61.96%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마감** 로이복층유리, 석재, 금속패널
프로젝트 참여자 오현석, 변남일, 김용기, 신민강, 문봉주, 김도홍, 박호준, 이준우, 권오탁, 김경열, 서미경, 조혜진, 고우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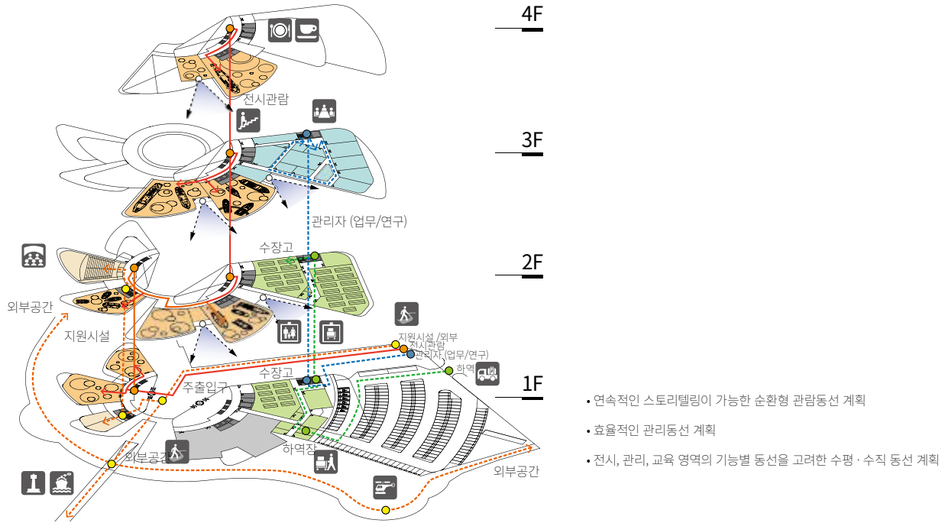


지상 2층 평면도

지상 3층 평면도

지상1층 평면도

전시관람 동선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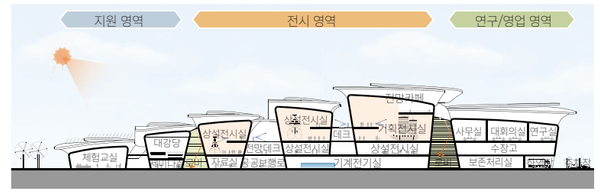


- 연속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순환형 관람동선 계획
- 효율적인 관리동선 계획
- 전시, 관리, 교육 영역의 기능별 동선을 고려한 수평 · 수직 동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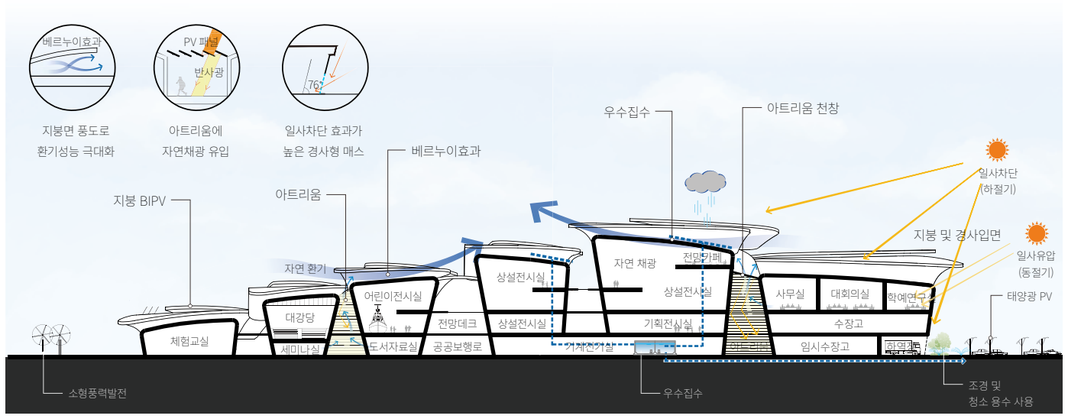
해양조망을 극대화하는 랜드마크 형상

진입부에서 내부공간까지 개방적 해양경관 조망확보

유사기능 통합조닝으로 효율성 극대화



각 기능별 출입구 및 홀 계획운영으로 이용효율성 증대, 다양한 전시특성을 고려한 전시장 층고계획

친환경 배치와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제로에너지 녹색건축물

STEP 1. 환경을 고려한 매스 계획 → STEP 2. 자연환기 유도 → STEP 3. 입면계획을 통한 부하절감 → STEP 4. 에너지 절감형 설비계획 → STEP 5. 에너지 생산 계획 →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